

# 아시아 문화수도 광주, 17일간 세계 스포츠 중심에 서다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D-84

세계를 '평화의 물결 속으로' (DIVE INTO PEACE) 안내하게 될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 12일-28일) 개막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평화, 친환경, 문화, 저비용 고효율'을 대외로 치르기 위해 분야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남녘의 작은 도시 광주를 '정의롭고 풍요로운 도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 '평화가 넘실대는 도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품격 있는 도시'로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다. 광주가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중 하나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하는 이유다.

◇세계인의 수영 축제=광주세계수영대회는 동-하계 올림픽, FIFA 월드컵 축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로 불린다. 7월12일부터 8월18일까지 31일간 광주와 여수 일원에서 열린다.

200여개 국 선수와 임원 1만5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스, 수구, 하이다이빙, 오픈워터수영 등 6개 종목 76개 경기에서 186개 금메달이 수여된다.

참가규모와 흥행 면에서도 올림픽, 월드컵에 버금가고, 특히, 올해 대회는 2015 러시아 카잔대회 이후 국가대표 대항전인 선수권대회와 전 세계 동호인들의 수영축제인 마스터즈대회가 동시에 열려 세계 이목이 광주에 집중될 전망이다.

광주는 일본 후쿠오카(2001년), 중국 상하이(2011년)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도시가 된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대한민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5대 국제대회를 모두 치르는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선수권대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의 43%가 배정돼, 7000여명의 세계 최고 선수들이 치열한 승부를 겨룰 것으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 경영과 다이빙 종목이 열린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의 관람석 확장 공사가 한창이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200여개국 선수·임원  
1만 5000여명 참가  
6개 종목 76개 경기 펼쳐

25개동 선수촌 완공  
남부대·염주체육관 경기장  
관람석 확충 임시수조 설치

7월 12일 개회식  
'평화의 물결 광주로'  
출연진 700명 퍼포먼스

보여 그 어느 대회보다 짜릿한 감동과 박진감 넘치는 명장면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8월 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마스터즈대회'는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8000여 명의 수영 동호인들이 광주를 찾아 경기를 치르면서 광주-전남 지역을 관광할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선수촌·경기장 공사 순조롭게 진행=선수촌을 비롯한 경기장 시설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산구 송정공유아파트를 재건축해 사용하게 되는 선수촌은 25개동에 1660세대가 들어서며 3월 말에 완공해 현재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7월2일 언론에 공개하고 7월5일 개촌을 준비하고 있다.

경영·다이빙 경기장은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관람석을 3393석에서 1만648석으로 늘리고 각종 운영시설도 두 배 이상 확충해 주경기장으로 활용한다. 수구 경기장 열리는 남부대 축구장은 임시수조 2개와 4340

석의 관람석을 설치한다

아티스틱스수영 경기가 열리는 염주종합체육관은 임시수조 2개를 설치하고 운영실과 관람석을 5360석으로 개보수 중이다. 하이다이빙 경기장인 조선대 축구장은 임시수조 1개와 관람석 3027석을 마련 중이다.

또 장거리 수영인 오픈워터수영은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 2075석 규모의 관람석과 폰툰(출발대)을 설치할 예정으로 이번 달에 착공된다.

광주시는 경기시설물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4월부터는 일일 점검시스템을 가동해 5월 중에 모두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직위도 준공에 대비해 시설운영전담팀을 조기에 꾸려 대회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면 6월 초에 대회 시설을 이용한 테스트 이벤트를 개최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대회 하이라이트 개·폐회식=대회의 하이라이트

인 개회식은 7월12일 오후 8시부터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빛의 분수'를 주제로 700여명의 출연진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진다.

주제인 '빛의 분수'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5·18민주광장 분수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전 세계의 물이 민주 평화의 정신을 품은 광주에서 하나의 물결로 솟구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5·18민주광장과 개회식장의 공간을 이원으로 연계해 분수에 모인 물이 개회식장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연출하고, 광주 예술인과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해 민주와 평화의 성지로서 광주의 상징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폐회식은 7월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개최되며 '아름다운 순환'을 주제로 광주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결이 온 세계로 순환하는 내용을 남도의 춤과 가락으로 표현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대한민국 위상 한단계 높일 기회, 온 국민 함께하는 대회 만들어야”

### 이용섭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장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겠습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다가오면서 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용섭(사진) 시장은 대회에 대한 각오와 다짐이 남다르다. 이번에 수영대회를 개최하면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까지 세계 5대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는 4번째 국가가 된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5대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자 축복이다. 대회를 잘 치르는 건 내게 주어진 책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회 성공 요인으로 국민적 관심 제고

국민 관심이 성공 대회 1 과제

북한 선수단 참가 긍정적 전망

분야별 준비사항 빈틈없이 점검

와 북한 선수단 참가를 꼽았다.

그는 “광주에서 개최하지만 대한민국 위상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정부를 비롯한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대회’로 치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이 시장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시장은 D-100일(4월3일)을 기점으로 매일 점검 시스템(CPX, 지휘소연습)을

가동하고 있다.

또 “이제는 실전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광주시와 조직위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경기장, 선수촌, 경기운영, 안전, 수송 및 입출국 지원, 문화홍보, 자원봉사자 및 시민 서포터즈 운영 등 분야별 준비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8일 광주에서 열리는 ‘K-POP 슈퍼콘서트’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 시장은 “수영대회 성공기원 슈퍼콘서트는 광주의 역량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이자 외국인들과 세계인들에게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며 “교통, 숙박, 안전, 질서유지 등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영도시 광주’. 이 시장이 준비하고 있는 광주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강조하는 이 시장은 대회 후 레저사업(유산)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국제대회를 개최한 도시는 발전하기도 하지만 부채에 시달려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며 “광주는 ‘저비용 고효율’의 성공사례를 남기고, 수영저변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여 수영도시 광주가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시민들이 내 집에 귀한 손님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대회를 치러낼 때 자랑스러운 광주 역사가 되고, 광주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생명영양 으뜸진남  
전남쌀 공동브랜드

# 풍광수로

창사 67주년  
광주일보

남녘의

신 선 한 바 닷 바 람 風

풍 성 한 햇 별 光

깨 끓 하 고 맑 은 물 水

오 염 되 지 않 은 기 림 진 흙 土

에서 재배한 전라남도 농협 대표브랜드 쌀입니다.

“더 건강하고 밥맛이 우수한 품질 좋은 쌀로 보답하겠습니다”